

# 사회문화적 공간 확장과 문학적 형상화: 유럽연합 출범 이후 스페인 소설의 양상과 특징\*

—호세 카를로스 소모사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김 상 유  
단독/서울대학교

Kim, Sang-Yu(2008), La extensión del espacio sociocultural y las figuraciones literarias: algunas características de la novela española después del establecimiento de la Unión Europea, *Revista Iberoamericana*, 19-2, pp. 1-25.

Actualmente, el establecimiento de la Unión Europea es uno de los movimientos más destacados en el moderno sistema mundial. Por la extensión del espacio sociocultural tras su marcha, hoy en día la literatura se produce, se difunde y se consume de manera muy distinta, al comparar con la literatura anterior a los años 90 del siglo XX. El objetivo de este estudio es investigar algunas características nuevas en la novela española después del establecimiento de la U.E., respecto a la interrelación entre la extensión del espacio sociocultural y las figuraciones literarias. Para ello, primero, haremos comentarios breves sobre el ambiente sociocultural de España actual y las características peculiares de la literatura española contemporánea. Como José Carlos Somoza (1959~ ) es uno de los escritores más representativos entre los que han empezado a escribir las obras después de establecerse la organización europea, analizaremos las tres novelas del escritor: *Clara y la penumbra* (2001), *La dama número trece* (2003) y *Zigzag* (2006), para obtener algunos aspectos concretos de las nuevas corrientes literarias.

[novela española contemporánea / Unión Europea / figuraciones literarias / José Carlos Somoza; 스페인 현대소설 / 유럽연합 / 문학적 형상화 / 호세 카를로스 소모사]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21-A01191).

## I. 서론

문학을 가늠하기 위해 그 시대의 사회를 연구하기도 하고,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시대의 문학에 기대기도 한다. 분명 문학과 사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둘 간의 상관성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또한 문학의 변모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과 ‘글로벌’이라는 라벨을 달고 있는 지금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변모하는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추세는 새로운 장르, 새로운 내용과 형식 등을 통해 문학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1993년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더불어 유럽연합이라는 국가 연합체의 형성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세계체제의 변화 양상 중의 하나다. 유럽연합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변화 양상은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정치경제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문학을 포함한 문화 분야와 관련된 연구는 희소한 상태다.

유럽연합의 주요국 가운데 하나인 스페인은 20세기 말부터 정치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스페인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문학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은 과거의 사회와 문학을 연구하는 것과 차별적이다. 지난 시기의 경우 스페인의 사회와 문학을 분석하는 것은 대부분 스페인이라는 지역적 범위 속에서 이뤄졌지만, 유럽연합 출범 이후의 사회와 문학을 분석하는 것은 한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적 틀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스페인 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진 않았다. 유럽연합으로 사회문화적 공간이 확장된 지금, 현재의 문학은 과거와는 현저히 다른 여건 속에서 생산, 유통, 소비되고 있기에, 그 문학의 양상은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유럽 단일화의 도정에서 어떤 이들은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국가나 지역의 정체성 확보에 더욱 무게감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상업화, 대중화, 다양화되고 있는 문화적 경향 속에서 스페인 소설 또한 그런 상황에 적응하거나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공간의 확장은 문학적 형상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최근 스페인 소설의 특징은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수행된 문학 연구들은 대부분 유럽연합 출범 이전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 특히 스페인 현대문학에 있어서 1970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작품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연극이나 시 혹은 영화와 같은 장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인 현대소설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으로 확장된 사회문화적 공간 속에서 스페인 소설의 양상과 특징에 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유럽연합 출범과 함께 변화된 스페인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짚어보고, 스페인 현대 소설의 전반적인 시대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페인 현대소설 작품을 선정해서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는 호세 카를로스 소모사(José Carlos Somoza, 1959~)의 2000년대에 출간된 작품들로 분석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선정 이유는 소모사가 유럽연합 출범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작가이며 스페인 현대소설의 새로운 흐름을 대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모사의 작품 분석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공간 변화와 문학적 형상화의 문제를 고찰하여, 유럽연합 출범 이후 등장한 스페인 현대소설의 몇 가지 특징과 구체적인 사례를 확보하고자 한다.

## II. 유럽연합의 출범과 스페인의 사회문화적 공간 변화

### 1. 유럽연합의 출범과 문화정책

지금의 세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넘어서, 국가연합체 대 국가, 혹은 국가연합체 대 국가연합체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 낫설었던 '글로벌화' 혹은 '세계권역화'라는 용어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

하게 자리잡고 있다. 20세기 말부터 재편되고 있는 세계체제는 사회 각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문화 영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세기 중반부터 서서히 진행되어온 통합의 과정으로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적 연합체가 탄생되었으며, 현재 회원국의 수적인 증가와 회원국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이라는 지역 단위는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공유 기반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은 역내 정치경제적 통합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 속에 국가간 문화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또한 커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국가간 관계의 질을 끌어올리고 인종, 계층 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동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유럽연합은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크게 회원국들의 문화 진흥과 상호이해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문화를 지키고 가꾸려는 노력과 함께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등, 정치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문화적 측면은 복잡하고 중층적일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국들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계기로 단일 화폐, 공동 외교 및 안보 정책, 공동 시민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이와 더불어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공동 정책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문화 분야에 있어 문화유산, 도서, 예술 창작 등에 관한 유럽연합 협력 프로그램인, ‘만화경’, ‘라파엘’, ‘아리안’ 등의 사업이 시행되었고, 문화 진흥 프로그램인 ‘문화 2000(Culture 2000)’과 시청각 산업을 지원하는 ‘미디어 플러스(Media Plus)’,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다국어 지원 사업인 ‘전자 콘텐츠(e-content)’도 추진되었다. 더구나 유럽연합이라는 틀을 바탕으로 문화적 생산에 있어 국가간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그 문화상품의 유통과 소비는 국가간의 경계를 손쉽게 넘나들고 있다. 또한 문화상품의 주요한 주제 및 소재는 국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국가간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경제적 공동체 형성으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는 사회적 양상은 문화적 영역에 뚜렷이 반영되고 있다.

## 2. 변화된 스페인의 사회문화적 공간

20세기 스페인 사회는 제2공화정에 이은 스페인 내전, 프랑코 독재, 민주화, 유럽연합으로의 편입 등과 같이 커다란 변동을 경험하였으며, 각 시대마다 사회문화적 공간은 현격한 변화를 보여 왔다. 특히 프랑코 독재기를 거친 후 스페인의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체계가 급변하게 된다. 과거의 프랑코 정권은 지방 문화와 방언을 말살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프랑코 사후에 스페인의 17개 자치주는 독립적인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당시 스페인의 국가 조직개편과 관련된 1978년 헌법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방자치를 허용하게 된다. 과거의 '지역들'을 '자치지역들'이라고 부르며, 자체적 통치와 의회를 허용하는 등 미국의 주들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1979년 이후 스페인의 국가 재조직화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가 주창하는 '자치주들의 국가'라는 개념이 지역 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르는 인위적 명칭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카탈루냐, 바스크, 갈리시아 등과 같은 몇몇 지방자치정부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작가들이 지역 언어로 작품 활동하도록 장려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카탈루냐와 바스크 인들 중 상당수가 자신을 스페인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동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바스크 테러단체인 ETA는 스페인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문화적 지역주의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스페인의 지방자치정부는 최대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다양한 지역문화의 활성화 및 지역간 문화적 갈등 해소라는 두 상반된 측면을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페인 중앙정부가 스페인이라는 국가 단위가 아닌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적 단위를 통해 다양한 지역주의적 흐름들을 조율하고자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독자적 노선을 취하는 몇몇 지방자치정부는 스페인이라는

국가 단위를 거부하고 독립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유럽이라는 거대한 초국가적 틀 속의 일원이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바로 스페인이 유럽이라는 커다란 영역 속에서 자칫 자국의 독립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해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스페인의 관계, 그리고 스페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와의 관계는 문화적 측면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스페인은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적 단체와 자국의 지방자치정부 사이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문화라는 틀 속에서 유럽연합과 스페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정부는 중층적인 관계구도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은 유럽연합의 일원이 된 이후, 현재 유로화 사용 및 회원국 간의 인적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교류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을 조율하고 그에 협력하는 문제와 더불어 같은 언어권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스페인에 유입된 상당수의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동유럽 이민자들로 인해 한층 복잡해진 문화적 갈등은 적지 않은 문제이자 중요한 국제 협력 사안이다. 정치경제적 통합은 한 사회의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며, 반면 문화는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문화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이상(理想)을 실현하려는 활동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한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총칭한다. 특히 문화는 학문, 예술, 종교, 도덕 등 인간의 내적 정신활동의 소산을 가리킨다. 이러한 문화 영역 중에 문학은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보여주며, 시공간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장르라 할 수 있다. 즉 문학은 사회적 관계망을 종합적으로 드러내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 심리까지 보여주는 문화적 장르이다. 최근에 창작되는 스페인의 문학 작품들은 그 소재와 주제 및 구성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문학적 변모는 사회적인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III. 스페인 현대 소설의 변천 양상

#### 1. 프랑코 집권기와 정치적 전환기의 스페인 소설<sup>1)</sup>

스페인 내전(1936-1939)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문학적 흐름 속에서 프랑코 집권기(1939-1975)의 문학적 양상은 시기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40년대의 주관적 실존주의 경향, 50년대의 사회적 사실주의 경향, 60년대 중반의 형식적 실험주의와 더불어 사회 비판적 경향 등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각 시기마다 문학 세대를 형성한 작가군도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스페인 내전(1936-1939) 이후 소설 장르의 세대 구분을 위해 쓰인 용어는 문학사가에 따라 차이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쟁 1세대(Primera promoción de la guerra)’, ‘세기 중반 세대(Generación del medio siglo)’, ‘60년대 말 세대(Generación de finales del 60)’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전후 문학’은 내전과 더불어 문인들의 사망 및 망명으로 축소되고 분리된 문학으로, 그리고 프랑코 정권의 이데올로기 선전으로 제약받고 검열로 통제 받은 문학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프랑코 시대에 주류를 이루는 몇몇 대규모의 집단적 문학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현대 스페인의 문화적 흐름은 1975년 프랑코 정권의 몰락과 함께 급변하기 시작했다. 프랑코 시대(1939-1975) 동안 정권의 검열로 위축되었던 스페인 문화는 민주화와 더불어 다시 꽃피우기 시작했으며 유럽연합의 출범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 및 물적 교류 또한 공고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전반적인 문화적 상황과 맞물려 문학 또한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게 된 계기가 되었다.

프랑코 사후의 ‘정치적 전환기(1975-1982)’가 지닌 가장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는 바로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는 전환기 이후 새로운 문학적 토대로 간주할 수 있으며, 망명 문학의 통합과 프랑코 시대의 이데올로기 청

1) 프랑코 독재기와 정치적 전환기 문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상유(2003)를 참조하기 바람.

산은 스페인 내전에서 비롯된 과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게 된다. 전환기 이후 실험적 형식이 퇴조하고 작가의 내면적 주제들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메타 소설, 추리소설, 내전 및 전후 상황을 주제로 한 역사소설, 피상적이고 가벼운 주제를 다룬 소설 등이 부상하게 된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주도하던 '전후 문학'과는 달리, 이 시기부터 문학은 다양성 혹은 복수적 경향의 문학이자, 본격적인 소비 및 대중 문학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 2. 유럽연합 출범과 스페인 소설의 새로운 지평

앞서 언급한 20세기 초중반 스페인 문학은 주로 스페인 내부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작품의 내용으로 국내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배경 또한 스페인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비록 라틴 아메리카나 인근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없지는 않으나 전체적인 작품 속 이야기는 제한된 지리적 범위 내에서 전개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등장인물의 국적 또한 대부분 스페인 사람이며, 외국인이 주인공이나 비중 있는 인물로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정치적 전환기를 지나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문학적 주제와 소재는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문학을 이끄는 하나의 주류가 사라지고 다양성과 대중성으로 특징 지워진 현대 스페인 문학에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적 체계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더 나아가 유럽연합 출범 이후, 변화된 사회문화적 공간을 반영하는 새로운 경향의 문학 작품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라는 틀 속에서 자유로운 인적 물적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문학의 내용은 다양한 유럽 국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과거의 문학이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의 현실을 뚜렷이 보여주는 문학이었다면, 지금의 새로운 경향은 유럽의 여러 나라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한다. 작품 속 이야기는 유럽 여러 나라를 배경으로 펼쳐지며, 다양한 국적의 등장인물들이 작품 속에서 협력이나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유럽 내 국가간 경계를 손쉽게

드나들고 있다. 그리고 소설 속에 다양한 외국어들이 원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점은 공식 문서를 모든 소속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는 유럽연합의 다언어 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어로 번역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문학작품의 유통범위가 과거에 비해 무척 넓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도서시장의 변모 또한 작가의 작품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개괄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소설 텍스트 속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회문화적 공간 확장과 문학적 형상화의 연관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 IV. 텍스트 분석: 호세 카를로스 소모사의 작품을 중심으로

호세 카를로스 소모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부상한 스페인 작가이며 매우 독특한 작품 세계로 주목받고 있다. 1959년 쿠바에서 출생한 소모사는 한 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스페인으로 건너와 줄곧 스페인에서 자라고 공부했다. 그는 의학, 특히 정신과를 전공했지만, 의사로서의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다. 1994년 첫 작품 「가재 Langostas」로 ‘마르가리타 시르구’ 드라마 대본상과 「지도 Planos」로 ‘가브리엘 시혜’ 단편 문학상을 수상한 후, 정신과 의사 생활을 청산하고 전업 작가가 되었다. 해마다 장편소설을 한 작품씩 발표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중성뿐만 아니라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채로운 작품성 또한 인정받고 있다. 소모사는 『블랑카의 침묵 Silencio de Blanca』(1996)으로 ‘손리사 베르티칼 상’, 극작품 『미겔 윌 Miguel Will』(1997)로 ‘세르반테스 희곡상’, 『색칠된 창문 La ventana pintada』(1998)으로 ‘카페 히혼 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실신한 다프네 Dafne desvanecida』(2000)로 ‘나달 문학상’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이데아의 동굴 La caverna de las ideas』(2000)로 ‘골드 대거 문학상’과 ‘플링티산 상’, 『클라라와 암흑 Clara y la penumbra』(2001)으로 ‘페르난도 라라 소설 상’과 ‘해멧 상’, 『심연의 열쇠 La llave del

abismo』(2007)로 ‘토레비에하 소설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소재와 주제는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기에 ‘변신하는 X맨’이라 불리기도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한 소모사의 작품은 『클라라와 암흑』(2001), 『13번 귀부인 La dama número trece』(2003), 『지그재그 Zigzag』(2006) 등이다. 세 작품 모두 2000년대에 출간된 최근 작품으로, 추리소설이라는 공통점과 더불어 소모사가 지닌 작가적 상상력이 매우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클라라와 암흑』은 인간의 신체가 그림의 화폭으로 사용되는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13번 귀부인』에서는 위대한 작가들의 시(詩)를 이용해 엄청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며, 『지그재그』에서는 현대물리학의 ‘끈 이론’을 이용해 시간의 끈을 풀어헤치면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작품의 내용, 배경과 등장인물, 형식과 기법 등을 분석하여, 사회문화적 공간 변화와 문학적 형상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 1. 『클라라와 암흑 Clara y la penumbra』(2001)

2001년 출판된 『클라라와 암흑』은 그로부터 5년 뒤인 2006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하이퍼드라마티즘(hiperdramatismo)’이라 불리는 새로운 예술적 경향을 소재로 한다. ‘하이퍼드라마티즘’은 인간의 몸을 미술 작품의 재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모델의 몸에 색깔을 칠하고 특정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바디페인팅’과는 달리 마치 미술 작품처럼 전시되고 거래된다는 차이가 있다. 즉 특정한 조명과 구도 속에 ‘하이퍼드라마티즘’ 모델은 미술관에 수 시간 동안 전시되고, 그 작품이 마음에 드는 고객은 구매를 하여 자신의 집에 가져갈 수도 있다. 모델들은 미술작품의 재료뿐만 아니라 장식품이 되기도 하고 테이블, 의자, 전기스탠드 등과 같은 가구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이 소설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인권과 예술적 가치의 문제가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등장한다.

『클라라와 암흑』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하이퍼드

라마티즘'의 대가인 브루노 판 티쉬의 작품에 쓰인 모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 사건을 조사하는 이야기가 하나의 축으로 전개된다. 이와 더불어 '하이퍼드라마티즘' 예술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라 레예스의 이야기가 또 다른 축을 형성한다. '거시적' 현실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축에서는 '하이퍼드라마티즘' 예술의 사회적 메커니즘과 운용방식을 그리고 있으며, '미시적' 현실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축에서는 클라라의 개인적인 삶과 고민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네덜란드가 이 작품의 주된 배경이지만, 이외에도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국가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 살인사건은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하고, 두 번째 살인사건은 독일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클라라의 이야기는 스페인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다. 주요 등장인물들 또한 다양한 국적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이는 다음에서 인용한 클라라의 경력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신(클라라)은 바르셀로나에서 쿠이네로부터 HD(하이퍼드라마티즘) 예술과 캔버스 기법을,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데킨트로부터 청소년 예술을 공부했지요. 또한 피렌체에서 페루치올리와의 [...] (Somoza, 2001: 29).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국제적 협력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몇 초 뒤에 침실에서 나는 소음과 함께 프랑스어가 들렸고 주방에서 더 큰 소음과 함께 네덜란드어가 들렸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들은 영어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Somoza, 2001: 107). 이러한 방식의 묘사는 소설 곳곳에서 나타나며 유럽 시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유럽을 하나의 단일한 세계로 규정하면서 다른 대륙과 구분되는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등장인물들은 ‘유럽시민’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립밴윅클’은 유럽공동체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 ‘립밴윅클’은 회원국의 결속 기금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지요. [...]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유럽의 문화예술 유산에 영향을 주는 이 사건들이 오랜 전통을 가진 회원국 시민들 모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테러 집단이 파르테논을 위협한다면, ‘립벤윙클’은 개입하게 됩니다(Somoza, 2001: 257-258).

그리고 유럽은 여러 국가들의 연합이 아니라 통합된 국가로까지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술가’가 유럽의 문제라는, 말하자면 국내의 미치광이라는 주장을 널리 퍼트려야 합니다. ‘예술가’는 외부로 나갈 수 없고 유럽에서, 유럽에서만 활동한다고 납득시켜야 합니다”(Somoza, 2001: 338). 여기서 ‘예술가’는 살인용의자를 부르는 별명이다.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미국에 전시 중인 브루노 판 티쉬의 작품들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술재단 수뇌부가 회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다.

더구나 유럽 국가간의 결속은 이 작품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판 티쉬 미술재단 또한 유럽 전체의 유산으로 묘사된다. “이 재단은 모든 유럽인들의 유산이고 우리 유럽인 모두는 그것을 보살피야 합니다”(Somoza, 2001: 264). 그리고 “회원국의 안전과 문화유산이 위기에 처했을 때(379)”, “파르테논에서 모나리자까지, 다비드 상에서 베토벤의 심포니까지(386)” 등과 같은 표현에서 보듯이, 유럽의 공동 문화유산에 대한 언급은 작품 전체에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소설에서는 ‘협력하는 유럽’을 통해 작품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가 함께 연구해서 ‘하이퍼드라마티즘’ 예술에 쓰이는 새로운 재료나 약품이 개발되었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특정한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는 논리가 독자를 설득하기에 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세루블라스틴’은 실리콘과 비슷한 재료지만, 훨씬 더 발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금세기 초에 하이퍼드라마티즘 예술에 쓰일 목적으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에 있는 실험실에서 개발되었습니다(Somoza, 2001: 261).

이 소설에서 단일화된 유럽은 다른 지역, 특히 미국이나 일본과의 경쟁

구도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이퍼드라마티즘’ 예술품의 판매 실적을 두고 새로이 부상한 일본에 대해 경계를 하기도 하고 브루노 판 티쉬가 유럽을 떠나지 않고 유럽 내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보이기도 한다.

다른 무수한 예술가들이 이민을 간 것과는 달리, 판 티쉬 선생님이 자신의 작품활동을 구대륙에서 한다는 것은 유럽 전체에는 그리고 우리 유럽시민들에게는 자랑입니다(Somoza, 2001: 264).

물론 이 소설에서 유럽통합 및 글로벌화를 막연히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통합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합된 유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설 마지막에서 판 티쉬 미술재단은 브루노 판 티쉬의 후계자로 스페인 출신 예술가 비키 예도를 선택하게 된다. “(비키 예도는) 네델란드인이 아니었고, 이는 판 티쉬 재단이 그 어떤 유럽 예술가라도 흔쾌히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Somoza, 2001: 533). 이와 더불어 글로벌화의 문제점은 다음의 인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립벤윙클’은 유럽과 동일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분열된 통합이죠. 유럽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전부가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계속 지키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개별성을 글로벌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점점 더 적은 개인들, 더 적은 인종들, 더 적은 국가들, 더 적은 언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 모두가 영어로 말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주의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벨탑에서 영어를 말하고 그 탑과 함께 전진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화가 요구하는 것이고 유럽인들은 개인의 조건을 포기하지 않은 채 글로벌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개인이 무엇입니까? 프랑스인, 영국인, 이탈리아인이라는 게 무엇을 의

미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세요. 당신은 독일 출신의 네덜란드인이고, 나는 프랑스인이지만 네덜란드에서 일하고, 에이프릴은 영국인이지만 이탈리아에서 살았고, 제이콥은 미국인이지만 유럽에서 살고 있어요. 지난날 예술 유산은 우리의 차이를 만들었지만 지금 상황은 변했습니다. 네덜란드인은 스페인인과 함께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고, 루마니아인은 페루인과, 중국인은 벨기에인과 말이지요. [...] 이제 그 누구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Somoza, 2001: 425).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성을 버리지 않고 글로벌화의 이상을 꿈꾼다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 가속화되어 가는 글로벌화로 인해 다양한 개성, 지역성, 국민성, 언어 등이 소멸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클라라와 암흑』의 구성과 내용은 상당부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작품의 배경은 유럽 여러 나라에 걸쳐 있고, 등장인물 또한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소설 속의 판 티쉬 미술재단은 유럽연합의회를 연상시킨다. 다양한 국적 출신으로 이뤄진 미술재단의 수뇌부는 그들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단일한 유럽의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고 그에 대해 고민하는 현실 세계의 모습이 소설이라는 가상 세계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 2. 『13번 귀부인 La dama número trece』(2003)

『클라라와 암흑』이 미술 장르를 소재로 한다면, 『13번 귀부인』은 문학, 특히 시 장르를 소재로 한다. 『13번 귀부인』은 현재 시점이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이 공간적인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앞선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 소설에서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매우 현실적인 배경 속에서 펼쳐진다. 실업 상태에 있는 문학 교수인 살로몬 룰포는 밤마다 동일한 내용의 꿈을 꾀다. 불면의 나날을 보내던 그는 어느 날 꿈속에서 보았던 집을 현실에서 직접

보게 되고, 헝가리 출신의 매춘부인 라켈과 만나게 된다. 사건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결국엔 위대한 시인들의 시를 이용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마녀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 소설은 실제의 역사와 현실에 뿌리를 두고 독특한 가상 세계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상 추리소설로 치부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의 구성을 통해 유럽 공동의 문화유산이 신화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먼저 작품 속에 마녀로 등장하는 귀부인들의 이름이 유럽 문화의 토대라 할 수 있는 그리스/로마의 언어, 즉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유럽에서 이러한 이름들은 지극히 생소하지만 유럽인들이 서로 공유하는 문화에 속하는 것이다.

그녀들은 숫자와 비밀 이름과 금메달 모양의 상징물을 부여받는다네. 그녀들의 이름은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나온 것들이지... <바쿨라리아, 파시나리아, 헤르베리아, 말리아르다, 라미아, 말레피시에, 베네피시에, 마가, 인칸타티릭스, 스트릭스, 아켈로스, 사기>(Somoza, 2003: 137).

이런 이름을 지닌 귀부인들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훌륭한 시를 쓰도록 한 뒤, 그 시를 이용해 자신들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귀부인들이 부여한 영감으로 훌륭한 시를 쓴 작가들은 작품 전체에 걸쳐서 반복해서 등장한다.

위대한 시인들에게 비밀스럽게 영감을 주는 집단이 존재하는데, [...] 몇몇 귀부인들은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지. 페트라르카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여성은 라우라이고, 셰익스피어에게는 검은 피부의 여인, 단테에게는 베아트릭체, 뢰팅겐에게는 디오티마가 있었지...(Somoza, 2003: 103-104).

이미 자네들에게 언급한 바와 같이, 페트라르카에게 영감을 준 라우라가 실제로는 1번 귀부인인 바쿨라리아였다네. 2번 귀부인 파시나리아는 셰익스피어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소네트 속에 등장하는 검은 피부의 여인이었지. 3번 귀부인 헤르베리아와 뢰팅겐의 만남도 기술

되어 있고, 4번 팔리아르다와 훔덜린의 만남, 5번 라미아와 키즈의 만남, 6번 말레피시에와 윌리엄 블레이크와의 만남도 말이야…그렇게 해서 보르헤스와 사가의 만남까지(Somoza, 2003: 137).

위의 인용에 등장한 작가들은 페트라르카, 셰익스피어, 단테, 훔덜린, 키츠, 밀턴, 윌리엄 블레이크 등이며, 이외에도 호메로스, 베르길리우스, 괴테, 발레리, 말라르메, 알베르티, 프로페르티우스, 마차도 등과 같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과 같이 대부분 유럽 국가의 작가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적이다. 보르헤스, 네루다 같은 중남미 작가나 포(Poe)와 같은 미국 작가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더 나아가 시인들의 시를 암송하면서 힘을 발휘하는 귀부인들의 묘사를 통해, 연연중에 시인들의 문학적 중요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몇몇 귀부인들은 너무나 권능이 커지고 있지…마가는 내 머리칼이 곤두설 정도로 로르키를 이용해. 스트릭스는 입에 포를 달고 있고…, 비록 아직까지는 그녀의 수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야. 나는 엘리엇과 세르누다와 보르헤스를 사용하는데…그들의 시는 여전히 안정적이지. 하지만 너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듯이, 세상은 끊임없이 커지고 있어…바로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 알지도 못한 채, 나를 날려버릴 시를 쓰고 있는 중이야…하나의 문장을, 그 어떤 언어로든… (Somoza, 2003: 288-289).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시인들은 매우 강력했지만, 그들의 말을 발음하기에 그녀 자신의 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셰익스피어는 너무나 과했다. 만일 연습 없이 그의 시를 사용한다면 공중에서 터져버릴 위험이 있었다. 단테의 몇몇 삼행시들은 틀림없이 그 ‘마녀 모임’을 일소해버리기에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것들을 적당한 기교로 암송할 수 없으리라 우려했다. 밀턴과 관련해서는 헤르베리아와 같은 귀부인들이 그의 시를 파괴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적이 필수적이었다. 밀턴을 이용해서 대항하기엔 어려웠다(Somoza, 2003: 413).

위의 인용에서 각 시인에 대한 가치는 그의 시가 지닌 파괴력의 정도에 따라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시각에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13명으로 구성된 마녀들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서구 문인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배후로 나타난다. 이는 유럽 문학이 국가별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녀들의 조직적인 활동에 의해 유기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소설에서 다루지는 이러한 내용이 매우 공상적이긴 하지만, 각 유럽 국가들의 문학이 공동의 문화유산이라는 관점으로 그려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들 문학이 지닌 힘과 파괴력을 형상화함으로써, ‘유럽 문학의 신화화’라는 논리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13번 귀부인』에서도 비중 있는 등장인물들이 다양한 국적을 지니고 있다. 이 소설 초반에 등장하여 살해당하는 리디아 가레티는 이탈리아 여성이며, 주인공 라켈은 헝가리 출신이고, 13명의 마녀들에 대해 깊이 연구했던 인물인 허버트 라우센은 오스트리아 출신이다. 또한 등장인물들은 유럽 각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으며, 특히 라우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는 비엔나 대학교 인문대학에서 교수로 30세까지 일했지만, 교수직을 버리고 6년간 파리에 있었다네. 그 후 베를린으로 옮겼고 다시 교수직을 얻었지. [...] 그렇게 그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학술회의에 참가하기 시작했어(Somoza, 2003: 194).

이러한 자유로운 인적 이동과 만남은 현대 유럽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임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소설의 또 다른 특징은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등으로 쓰인 시들이 스페인어로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에서 외국어를 번역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오래된 전통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이 소설에서처럼 다수의 외국어 문장들이 자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채 비중 있게 등장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것은 유럽인들이 지닌 공동의 문화 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국가 단위로 제한된 틀을 뛰어 넘어 유럽이라는 단위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소설에서는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회원국 시민들이 느끼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도 엿볼 수 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실업 상태라니...? 이게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새로운 국가인가...? 우리가 책임져야 할 때는 유럽인이지만, 우리의 실업은 계속해서 국내 문제로 남아 있군(Somoza, 2003: 79).

이와 같이 스페인 국내의 문제도 간간히 등장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모사는 유럽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즉 스페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유럽인의 관점에서 소설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는 13명의 마녀들은 유럽 전역, 더 크게는 서구 사회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회원국들에 대한 문화적 지원 및 조율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 3. 『지그재그 Zigzag』(2006)

소설 『지그재그』는 현대 물리이론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독특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끈 이론(초끈 이론)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특히 이 소설에서 핵심적으로 도용된 물리이론은 바로 끈 이론이다. 즉 시간의 구조가 끈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특수하게 고안된 입자가속기를 이용해 그 시간의 끈들을 풀어헤침으로써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이론 물리학자와 실험 물리학자들이며, 소수의 인류학자, 고생물학자, 과학철학자 등이 등장한다. 이들의 국적은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 출신이다. 소설 속 현재는 2015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플래시백 기법을 쓰기도 한다.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은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뉴넬슨'이라는 인도양의 영국령 섬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소설의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은 앞선 작품들이 지닌 특성과 그리 커다란 차이가 없다. 하지만 소설 구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앞선 작품들과 차이점이 약간 존재한다. 『지그재그』에서 사건은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과거에서 현재로 되돌아오는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작품은 유럽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지그재그’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와중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담고 있는 공상과학소설에 해당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상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소모사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 만큼 유럽의 현실이나 국제 관계가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구체적으로 이 소설의 ‘지그재그’ 프로젝트는 다수의 유럽 국가들의 협력 하에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에서 거대강입자가속기(LHC)를 통해 블랙홀 실험을 하고 있는 실제 상황을 연상시킨다. 더구나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엘리사 로블레도가 대학시절에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서 생활한 경험도 나타난다. 그리고 ‘지그재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단체로 유럽연합에 소속된 이글 그룹(Eagle Grupe)이 등장한다.

(이글 그룹은) 설립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널리 알려져 있어, 과학을 진흥하기 위한 유럽연합 소속 기업들의 컨소시엄이지...(Somoza, 2006: 158).

이와 같이 유럽연합의 실체는 『지그재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엘리사 로블레도가 ‘지그재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서명한 계약서의 항목 가운데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과학연구와 안전에 관한 규정”(Somoza, 2006: 176)이 있을 정도로 말이다. 또한 유럽연합과 미국의 대결 구도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911 테러와 311 테러<sup>2)</sup>로 인해, 우리 모두는 낙원의 아담과 이브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별거벗은 채 통제 당한다는 거지. 분명 에

2) 2004년 3월 11일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열차 폭탄 테러 사건을 의미한다.

월론은 앵글로색슨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미국에 속해 있어.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얼마 전에 유럽에도 그와 비슷한 것, 에셀론과 비슷한 전략의 감시시스템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지(Somoza, 2006: 123).

그건 하나님의 눈처럼 모든 것을 보게 돼. 바로 시간의 빅브라더라네. 게다가 산업과 정치 스파이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어떤 대통령을 추방하기 위해 스캔들 증거를 찾을 수도 있어. 그건 이 프로젝트에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 벌어지는 시간을 다투는 경쟁이야. 분명히 미국도 그들의 지그재그 프로젝트를 태평양의 어느 섬에서 이미 시작했어(Somoza, 2006: 277).

미국이 가진 세계적 패권에 대응하는 것은 통합유럽의 현실적인 결성 목적이며, 소모사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한 이야기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공동 협력은 ‘지그재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 과학자들의 공동 연구에서 명확히 드러나 있다. 여기서 유럽인들이 협력하는데 있어 그들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를 단순히 정치경제적 측면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바로 그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종교적 토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그재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과학자들이 가장 풀고 싶어 했던 ‘시간의 끈’ 중 하나는 예수가 생존해 있던 시기의 예루살렘이었다. 혹여 예수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모든 과학자들은 흥분하게 된다. 분명 유럽인들의 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기독교적 가치를 배제하고 ‘하나의 유럽’을 주장하기란 힘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단테, 베이컨, 아인슈타인, 셰익스피어, 아나톨 프랑스, 마리아 에지워스, 플로베르, 몽테뉴 등에서 인용한 문장으로 각 장의 첫 페이지는 장식되어 있다. 이 소설을 지배하고 있는 유럽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인물들은 이제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등의 개별국가 소속에서 벗어나 유럽 전체가 공유하는 작가, 사상가, 과학자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다.

## V. 결론: 사회문화적 공간 확장과 문학적 형상화

유럽연합으로 확장된 사회문화적 공간 속에서 스페인 소설의 새로운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스페인의 변화된 사회문화적 공간과 현대소설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2000년대에 출간된 호세 카를로스 소모사의 소설 『클라라와 암흑』, 『13번 귀부인』, 『지그재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이들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는 유럽 여러 국가의 도시들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등의 도시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 도시의 문화와 공간적 특징이 구체적으로 작품 내에 소개되고 있다. 세 작품 모두에서 등장인물들은 국경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여 서로 만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스페인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던 과거의 작품적 경향과는 차별적인 것이다. 두 번째 측면으로, 작품 속 등장인물의 다국적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전 작품들의 등장인물은 대부분 스페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소모사의 세 작품에서는 공통적으로 스페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등장인물이 출현한다. 따라서 사건들은 국제적 층위에서 발생하고, 그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또한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뤄지게 된다. 물론 보르헤스의 문학에서 볼 수 있듯이, 코스모폴리타니즘 경향을 지닌 지난날의 작품들 또한 다양한 국가를 배경으로 하거나 다양한 국적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코스모폴리타니즘 경향의 작품들과 소모사의 작품세계의 차이점은 바로 '유럽적 가치'의 유무에서 찾을 수 있다. 소모사의 작품에서 공간적 배경이나 등장인물은 언제나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유럽의 지역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으며, 작품의 내용 또한 유럽연합과 외부세계(미국이나 일본) 간의 대결 구도로 설정되어 있다. 세 번째 측면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바로 유럽통합의 이상과 현실을 작품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이다. 유럽 국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유럽 공동의 문화유

산 보호나 유럽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 소모사의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러한 활동을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콜라라와 암흑』에서 판 티쉬 미술재단, 『13번 귀부인』에서 13명의 마녀(귀부인) 모임, 『지그재그』에서 이글 그룹 등이 매우 구체화되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작품 속 서술자는 스페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유럽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측면으로, 작품 속에는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언어가 원어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경우에 따라서 그 문장의 의미를 스페인어로 밝혀 주기도 하지만, 맥락 속에서 외국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어 문장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지적한 소모사의 작품 세계에 나타난 특징은 유럽연합의 출범과 더불어 변모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문학작품 속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의 스페인 문학작품은 더 이상 스페인 독자가 아니라 더 넓은 세계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대 사회 속에서 세계의 문학은 활발한 번역을 통해 상호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이라는 틀 속에서 생산되는 문학은 바로 일국의 독자들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독자들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바로, 소모사의 작품은 출간되자마자 속속 번역되어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콜라라와 암흑』은 독일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영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핀란드어 등으로 번역되었고, 『13번 귀부인』은 독일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영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최근에 출간된 『지그재그』 또한 영어를 비롯해 다수의 외국어로 번역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가 스페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유럽인 전체가 관심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작품의 주제로 설정하게 된다. 어쩌면 사회문화적 공간 변화에 따라 작품의 내용과 구성이 달라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작품의 무대가 넓어진 만큼 작품의 소재나 주제의 폭도 광범위해지고 있고, 그만큼 작가가 할 수 있는 작품 구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즉

유럽 각국에서 소재를 발굴하기에 그만큼 다양한 작품세계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학적 양상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소모사의 작품에서 보듯이, 지나치게 공상적이거나 환상적인 내용을 작품화하는 것은 오히려, 문학의 깊이보다는 기교적인 면이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성보다는 허구성이 강조되는 문학 현상은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텍스트 분석에 있어 사회문화적 변화 양상을 기준으로 했기에, 소모사의 작품세계가 보여주는 다양한 특징들 중 일부만 부각되었다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더 나아가 이 글에서 지적한 소모사의 작품에 나타나는 새로운 양상들은 지금의 스페인 소설 전체에서 일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턱대고 수많은 작품들과 작가들을 대상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것도 한 개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분석할 작가와 작품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은 후속 연구들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호세 카를로스 소모사 이외의 다른 스페인 현대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지금의 새로운 경향들과 관련된 전체적인 문학적 지형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스페인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의 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 연구를 통해서, 유럽통합의 영향으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문학적 양상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원택, 조홍식. 1999. 『유럽의 부활. 유럽연합의 발전과 전망』. 서울: 푸른길.
- 권오승. 1996. 『유럽연합의 형성과 세계체제론』. 서울: 까치.
- 그레슬레, 잉게. 1996. 『유럽의 문화채널 아르테 TV』. 신창섭 옮김. 서울: 한울.
- 김상유. 2003. 「스페인 '전후 문학'의 범주에 관하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14: 1-20.
- 김이섭. 2004. 「유럽의 통합과 문화정책에 관한 고찰」. 《유럽연구》, 20: 253-270.
- 노명환. 2001. 『역사와 문화의 차원에서 본 유럽통합의 제문제』. 서울: 한국의 국어대학교 출판부.
- 뒤로젤, 장 바티스트. 2003. 『유럽의 탄생』. 이규현, 이용재 역. 서울: 지식의 풍경.
- 박명진, 김병중. 1992.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산업. 언어와 문화적 차이의 극복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1): 169-247.
- 이복남. 2001. 「유럽문화협력공간의 확대와 유럽평의회의 활동」. 《국제지역연구》, 5(2): 229-250.
- \_\_\_\_\_. 2002. 「문화유럽건설과 EU 문화정책: 문화 2000을 중심으로」. 《EU 연구》, 11: 79-107.
- 이은해. 2003. 「문화적 시민권을 위한 유럽 연합의 노력」. 《유럽연구》, 17: 327-349.
- \_\_\_\_\_. 2004. 「유럽통합 전후에 나타나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언어문화정책」. 《유럽연구》, 20: 271-291.
- 임문영. 2003.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현택수. 2001. 「문화의 세계화 담론과 문화정책성」. 《문화정책논총》, 13: 1-26.
- 황의조. 2003. 「유럽 시민군과 문화적 갈등」. 《유럽연구》, 17: 233-255.
- \_\_\_\_\_. 2004. 「유럽신화 문학과 통합유럽 정체성의 문화적 형성」. 《유럽연구》, 19: 3173-339.
- Abad, Francisco. 1989. "Sobre periodización de la literatura española." *Cuadernos hispanoamericanos*, 469-470: 191-206.
- Canavaggio, Jean. 1995. *Historia de la literatura española: El siglo XX*, Tomo VI. Barcelona: Ariel.
- Gil Casado, Pablo. 1990. *La novela deshumanizada española (1958-1988)*. Barcelona: Anthropros.
- Gómez Canseco, Luis (ed.). 1994. *Las formas del mito en las literaturas*

- hispanicas del siglo XX*. Huelva: Universidad de Huelva.
- González Castro, Francisco. 1996. *Las relaciones insólitas: Literatura fantástica española del siglo XX*. Madrid: Pliegos.
- Gullón, Ricardo. 1994. *La novela española contemporánea (Ensayos críticos)*. Madrid: Alianza.
- Mainer, José-Carlos. 2000. *Historia, literatura, sociedad (y una coda española)*. Madrid: Biblioteca Nueva.
- Martínez Cachero, José María. 1997. *La novela española entre 1936 y el fin de siglo*. Madrid: Editorial Castalia.
- Quiñonero, Juan Pedro. 1998. *De la inexistencia de España*. Madrid: Tecnos.
- Sanz Villanueva, Santos. 1994. *Historia de la literatura española 6/2: Literatura actual*. Barcelona: Ariel.
- Somoza, José Carlos. 2001. *Clara y la penumbra*. Barcelona: Editorial Planeta.
- \_\_\_\_\_. 2003. *La dama número trece*. Barcelona: Mondadori.
- \_\_\_\_\_. 2006. *Zigzag*. Barcelona: Mondadori.
- VV.AA. 1992. *Los nuevos nombres: 1975-1990* (al cuidado de Darío Villanueva), tomo IX de *Historia y crítica de la literatura española* (al cuidado de Francisco Rico). Barcelona: Editorial Crítica.
- VV.AA. 2000. *Los nuevos nombres: 1975-2000. Primer suplemento* (al cuidado de Jordi Gracia), tomo 9/1 de *Historia y crítica de la literatura española* (al cuidado de Francisco Rico). Barcelona: Editorial Crítica.

성명: 김상유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E-mail: viomile@snu.ac.kr

논문접수일: 2008년 09월 25일

심사완료일: 2008년 10월 11일

게재확정일: 2008년 10월 20일